

### 조계종 학인 대상 첫 염불시연대회 연다 교육원 오는 7월 16일 개최

학인 스님들에게 염불 수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염불의 생활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시연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염불을 생활화해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계종 학인염불대회'를 오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학인염불대회는 개인부와 단체부로 나뉘어 이뤄지며, 당일 예식과 본심을 거쳐 진행된다.

개인부는 사미와 사미니로 나뉘며 각각 지정염불과 자유염불을 준비해 시연하게 된다. 지정염불은 사미는 '경허스님 참선곡(1분 30초)'과 장엄염불(1분 30초)을 사미니는 '이산산사 발원문(1분 30초)'과 장엄염불(1분 30초)을 시연하며 자유 염불은 <불교상용의례집> 및 <석문의법>에서 선택하거나 본인이 직접 창작해도 무방하다.

단체부는 시연시간 10분 이내로 <불교상용의례집>, <석문의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며 부분발체와 편집이 가능하다.

예식과 본심의 염불 시연 시 요령, 묵탁, 경쇠, 북 등의 법구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며 모든 심사는 의례위원 스님들이 직접 심사할 계획이다.

학인 스님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물적 지원도 상당하다. 개인부와 단체부 참가팀에게는 소정의 참가지원비(개인 10만원, 단체 50만원)가 지원된다.

개인부와 단체부에서 선발된 학인에게 대상(총무원장상) 300만원(각 부문 1명), 최우수상 300만원(2인), 우수상 300만원(3명 2팀), 원려상 200만원(4명) 등 총 17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종일 기자

### 서울·경기 포교 활성화 직할교구 올해 운영 기조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19일 제1차 교구총회를 열고 신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날 직할교구는 9개 핵심과제와 21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지인사교과제와 관련해 공정한 주지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주지인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기만료주지인사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사찰 주지들의 포교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종일 기자

## 중앙승가대, 발전 토대 마련되나

### 6대 총장 원행 스님 선출... 18개월 대행 체제 '종지부'

18개월, 조계종 최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 시간이다. 중앙승가대는 2012년 9월 전 총장 태원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한 이후 총장 대행체제를 유지해 왔다.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과 원종 스님(前 관음사 주지)은 각각 교수협의회와 중앙승가대총동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장후보에 올랐다. 이에 중앙승가대 법인인 승가학원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총장 선출을 요청했지만 합의를 못하고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1년 6개월의 갈등은 두 후보 스님의 양보로 해결됐다. 중앙승가대총동문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원종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前 회장인 원행스님(사진)을 총장후보로 결정했다. 미산스님을 후보로 내세웠던 교수협의회는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사실상 원행 스님이 단독후보로 이사회에 상정되게 됐다.

이후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0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원행 스님은 "훌륭한 교수진과 선배, 동

문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아 책임이 크다. 모든 분들이 잘 화합하고 종단 뜻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키라는 제책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종단의 교육은 백년대계로 무엇보다 스님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학원에서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미산·원종 스님 후보 사퇴

#### "학교 발전위한 결정" 미담

#### 최초 동문 출신 총장 기록도

승가학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100차 이사회 직후 원행 스님의 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며 직위 및 학교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원행 스님은 이에 대해 "두 후보분들이 양보의 미덕을 보인 만큼 승가인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기부분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선 총회에서 예산 소폭 인상 및 임금 동결 등을 보고 받은 자승 스님은 원행 스



님에게 "학교현실이 열악하다"며 "이번년도 예산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종단과 동문들이 신경을 써 학교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교수 및 임직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1973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총무와 기획실장, 무주 안국사 주지를 거쳐 중앙총회의원과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해인사 승가대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스님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집' 원장과 국제NGO 지구촌공생회 이사를 맡고 있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 태고종 발전위한 기금 모금운동 'START'

### 100만 서명 운동 발족식... "종단 구심점 될 것"

태고종이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태고종 발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족식을 갖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태고종 포교원장 경담 스님과 정경조 전국신도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태고종은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대표 불교 종단이지만 사회적 역할이 미흡해 그동안 교세가 축소돼 왔다"며 "이번 서명운동과 기금모연을 통해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이러한 운동이 종도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 실추된 종단 위



사진 왼쪽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은 태고종 경남총무원장 경담 스님과 총무원장 도산 스님, 정경조 전국신도회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상을 바로 세우자고 호소했다.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서명운동을 이끌 예정인 정경조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은 "100만 서명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라며 "태고종 모든 종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신도회장은 또 "서명운동을 통해 종도들의 애중심을 고취하고 기금을 모연해 종단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삼보

호지와 포교, 사회봉사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구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인 1000원 기부를 받아 종단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중앙포교원과 전국신도회가 중심이 돼 전국의 총무원에서 진행되며 월별로 추진경과가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총무원 대상 상설 교육 진행한다

### 직무·수행·인문 등 '다양'... 행정능력 향상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교역직·일반직 총무원들의 직무행정 역량을 배가시키고 인재상 확대를 위한 상설 교육을 시행한다.

조계종 총무부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무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총무원 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무원 인력 양성교육은 중앙총무원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 교구본사 총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교육장소는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과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정보센터가 될 예정이다.

교육은 △중앙총무원·산하기관 총무원 교육연수 △직무역량향상 과정 △총무행정학교 운영 △수행학교 △인문·사회 과정 △해의 성지 순례 총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상설 교육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인문·사회 과정 강좌이다. 인문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형 강의로 진행되며, 스님들은 승려연수교육 중 '교양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다.

수행학교를 통해서도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과정이 마련됐으며,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사회봉사활동도 진행된다. 봉사활동의 경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인정 사회복지기관과 사찰 자원 봉사 활동으로 나눠 이뤄진다.

해의 성지순례는 중앙총무원 입사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2월 또는 9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 총무원들은 전체 교육 중 2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특히 중앙총무원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4회로 예정된 교육을 2회 이상 참가해야 하며, 일반직 총무원들은 인문사회 과정 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상설 교육에 대해 총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사회 환경 변화와 총무행정 영역의 변화에 따른 총무원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총무원들이 다양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총무원역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1백여 행자 출가의 길에 들다

### 조계종 교육원, 제46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시작

#### 19일 직지사서 고불식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8교구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46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고불식을 열고 16일 간의 수계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71명, 여행자 46명 총 117명이 참가했으며, 오는 3월 5일에 회향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교육부장 정도 스님이 대독한 입재사를 통해 "수계교육을 통해 행자가간 동안의 수행과 정진과정을 점검하여 출가 사문의 길에 들어서 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교육기간 동안 성찰과 다짐을 통해 진정한 출가의 길로 가는 밑거름을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불식은 수계교육 유나인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이 행자들을 지도하는 습의도감 경암 스님에게 수계교육의 운영의 전반과 청규시행의 권위가 부여된 준비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제46기 수계교육은 3월 4일에 진행되는 5급 승가고시(논술, 객관식, 면접)를 거쳐 보살계를 수지하고 3월 5일에 진행되는 회향식과 수계식에서 사미·사미니계 수지하게 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9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46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수계교육은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 중앙승가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식 및 제6대 총장 취임식

본교 제6대 총장 행정학박사 碧山 圓行스님의 취임식과 2014년 입학식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58(2014)년 3월 3일(월) 오후 1시  
장소 : 본교 김포학사 자비관 4층 대강당

\*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화환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소중한 마음 담아 김포 지역사회의 뜻 깊은 곳에 쓰겠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5기  
벽산 원행 스님의  
제 6대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 회장 범해 합장